

“고난의 종의 호소와 우리의 응답”

■ 이종윤 원로목사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을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1,2) 이 말씀은 루터의 생애를 뒤집어 놓은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다.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루터에게 파헤쳐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여주신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였던 하나님의 얼굴이 용서와 사랑의 얼굴임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루터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복음으로 불붙게 했고, 그의 전생애를 복음 위해 불살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생애를 불태웠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형집행을 묘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읊긴 것이다. 십자가 형틀은 이 시를 기록한 다윗 시대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당시 사람의 경험치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시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수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른 바 까닭 없는 고난이라 해서 주님의 은고를 밤낮 탄원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철회하신 듯 일체 응답이 없으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거절당하는 고통 이상의 처절한 고통은 없다. 그러기에 본 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인의 비탄으로 시작된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불평이라기보다 시인의 심중에 일고 있는 신앙과 실망의 교전임을 -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짐을 대신 지시는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신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고난의 종이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타인의 생명만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은 그날 정오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지시고 있는 동안’ 그를 보지 않기 위한 방패로 어둠을 내리셨다. 이 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때 갑자기 예수께서 소리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군인들이 해면을 우슬초에 매며 예수의 입에 대어 주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며”라고 십자가로 오늘도 말을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심으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의 부활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한 이후,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의식할 경우 당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 죄는 내 안에서 사함 받았고 너희 고통은 지나가 버렸다”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시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으며(3), 과거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알며(4-5), 시인이 받는 수욕은 곧 하나님의 수욕이며(6-8), 시인은 모태로부터 주의 것으로 봉헌된 자임을 믿으며(9-10), 시인은 주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11-21)

과히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백성의 조롱감이 된 고난의 종 그리스도는 “너를 내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시냐”면서 칭 뵈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셨다. 별레 취급당하면서 다시 기도하신 고난의 종을 바라보자. 신앙이란 의지할 뿐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헌신 없는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은 말라갈같이 녹아내렸다. 마침내 고난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버리셨다. 당신이 죄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고난의 종된 메시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신다.

-한국장로신문 [제 1588호] 2018년 3월 31일 발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7일 목요일부터는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대면예배로 진행됩니다. 2021 홍해작전 기간에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와 각 가정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참여합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원하는 우리는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부 예배를 본당에서, 수요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는 유 · 초등부, 중 · 고등부, 청년부가 대면예배로 드리며, 새벽기도회와 영 ·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613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권광해(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 · 김희경,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상일(인도네시아), 김진공 · 황경혜(말리우),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경녀(캐나), 김종일 · 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병성(총회), / 이상,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 · 홍성임(말리우), 이재울 · 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 · 박재연(마다가스카르)



“ 벨엘로 가야합니다 ”

■ 창 35:1-5

그릇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과감하게 과거를 파괴한 신앙의 모델을 찾았다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아람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온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겔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격분한 아람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와 그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근 모든 지역의 부족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고 갔고, 아람의 가족들이 여러 부족 연합군의 공격으로 몰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아람은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람에게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람에게 삶의 혁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1.벨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위기 앞에 있는 아람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람은 일찍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던 중 하나님께 사원한 바 있습니다.(창 28:20-22)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나고 무사히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예배 없는 가나안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건이 터졌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벨엘에서의 예배 약속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람에게 예배 회복을 이렇게 시급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까? 예배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직접적이며 최고의 경배와 섬김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까닭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요 4:23)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온전한 예배 회복의 삶이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선행되면 우리 삶에 모든 부분에 거룩한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으로 우리 삶의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2.예배자의 준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들과 함께 벨엘로 올라갑니다.(3절) 그는 가족들에게 예배에 앞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자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었고 자기 파괴였으며 자기 혁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고을들로부터 아람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5절).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성찰과 회개라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냉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허물을 깨닫고 진실하고 통절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아람의 가족들이 모든 신상들과 미신적인 물건들을 땅에 묻고 벨엘의 예배를 향해 출발하듯, 우리를 악하고 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깊이 못 박아 버리고 경직한 성찰과 진정한 회개로 눈보다 더 회개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회복되는 언약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벨엘로 올라가서 예배드린 아람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9-11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아람이 계승하게 하였고, 30년 전 아람이 피난길에서 돌 배게 베고 잠 잘 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축복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를 완전한 언약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람은 완숙한 영적 지도자의 품격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신앙과 비신앙의 중간지대를 걸으면서 늘 위험하고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투쟁하듯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투쟁을 통한 권위를 삶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위엄한 원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른 예배가 그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완전한 새 피조물로 혁신되게 한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당당하고 품격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성찰과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개인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미래 소망과 비전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 흔들리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홀로 사는 것처럼 처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고 환경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든든하고 당당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생활의 구조를 혁신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5: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1(시 97)...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7(37)...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창 35: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벤엘로 가야합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28(488)...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29:2 인 도 자
 찬 송 94(102) 다 합 께
 기 도 김진달 집사
 성 경 수 2: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 땅을 주셨습니다” ... 설 교 자
 * 찬 송 542(34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박현영 권사 II부: 박수옥 권사
 성 경 수 3: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마른 땅으로 건너 갔더라” ... 설 교 자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6.14(월)-16(수)..... 조원영 목사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대면예배 및 예배실황 중계)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6.17(목)-19(토).....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창 35:3)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식이 6월20일(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교육을 위해 6월 13일(주일) 오후 1시까지 6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부터 3시까지 609호에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교육부(010-7743-322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12. 이번주 심방 일정</p> <p>4-2~3, 9-5다락방</p> <p>☛ 장 레</p> <p>1. 故 권태순 권사(12교구 이정연 권사의 모친, 최광성 장로의 장모) / 6월6일 별세, 8일(화) 발인</p>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57명	715명	2,372명	523명	3,009명

🌳 위기와 신앙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최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성자다.

예수님은 노도와 풍랑이 이는 갈릴리의 위기 상황에서도 고물에게 배개를 베시고 태연히 주무셨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에게 닥쳐온 최대의 위기란 오히려 그에게 최대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최대의 능력 앞에 있으면서도 최대의 불신으로 떨고 있었다. 주님의 능력보다는 풍랑의 위력 앞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한 인간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대의 난국에는 최대의 신앙이 요구된다.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고 험준한 고개일수록 지팡이가 요구되듯 큰 위기를 맞이한 자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p>청 결</p> <p>유 지</p>	<p>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p>
<p>에너지</p> <p>절 약</p>	<p>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p> <p>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p>
<p>주 일</p> <p>성 수</p>	<p>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p> <p>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p>